세월따라 변치 않는 가르침 〈아함경〉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② 부처님의 안목

안목(眼目)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의 안목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의 안목이다.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일이니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경전을 읽는 것이다. 수많은 경전 속에서 우리들을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보듬어주시기도 하고, 엄한 아버지가 되어 심한 꾸지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심지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우리를 향해 〈아미타경〉을 설법하시는 것을 보면 중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진다.

부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수많은 방편과 설법들이 다 경전 속에 오롯이 담겨져 우리들 곁에 팔만대장경의 모습으로 있다. 수많은 경전들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도 큰 숙제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의 열반을 가까이에서 본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어리석은 비구가 갑자기 울지 말라며 오히려 그동안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런 잔소리는 안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이런 말이 나온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부처님법이라 말할 지 난감했다. 속히 대중들과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과 경전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대중을 모아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번뇌가 다한 무학(無學)의 아라한과를 증득한 499명을 뽑고 제1차 결집을 선언한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삿투왕은 이미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이 자기 나라로 옮겨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모든 사원들을 정비하고 있었다. 가섭존자가 왕을 만나 라지기하 베바라 언덕의 칠엽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모으는 결집의 의지를 보이자 왕은 감동하여 결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양하며 후원한 인연으로 맹세한 인연으로 결집하는 동안 스님들은 탁발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계율과 경전을 결집한다는 소문은 온 세상에 퍼졌다. 먼저 우바리존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율을 조목조목 설하며 이 계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상황을 자세히 밝히니 모든 대중들은 한 점 의혹이 없었다. 모두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송(合誦)을 하며 율장을 정비했다. 그 뒤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설법을 부처님처럼 차근차근 말씀하였다. 대중들은 이 법문을 들으며 마치 부처님이 돌아오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합창하듯이 외우며 즐거워했다. 45년간의 설법은 이렇게 7개월 만에 경과 율을 모두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결집된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다. 아함(阿含)은 아아가마(agama), 가르침, 가르침이 전해짐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가 바로 아함인 것이다.

오랫동안 아함을 대승경전에 빗대어 소승과 대승으로 상대적으로 낮추어 불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처님이 중생과 가장 가까이서 교화한 사랑스런 경전으로 만나야 한다.

보통 아함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읽혀진 한역(漢譯)에서는 장편으로 구성된 〈장아함〉 22권(30경), 〈중아함〉60권(22경), 〈잡아함〉50권(1,362경), 〈증일아함〉50권(472경)의 4가지가 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읽힌 빨리어로 된 니까야(Nikya) 는 〈장부, 디가니까야〉 34경, 〈중부, 맛지마니까야〉 152경, 〈상응부, 상윳따니까야〉2,875경, 〈증지부, 앙굿따라니까야〉2198경, 〈소부, 쿳다까니까야〉15경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둘은 서로 유사성은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따라 조금씩 변했다고 해도 부처님의 아름다운 마음씨, 따뜻한 말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그 때, 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밝은 선지식이 지혜로 이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② 선지식과의 만남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내 부처님 이시다"라는 말씀은 내가 만났던 선지식이 하신 말씀으로, 선지식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 있는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는 달마 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은 중생 마음 속 형상 없는 존재이기에 마음 밖의 부처님, 가시적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가도록 지도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밝은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므로 내 부처님이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선지식은 만나기 힘든 존재일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지혜를 가진 위대한 분이시기에, 선지식을 만나기 전 공부는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식같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을 이해할 지혜의 눈이 없는 학생 불자시절, 나는 스스로 불교공부에 매우 소질있는 사람이며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만심이 가득했던 나에게도 속세에 어떤 선근이 있었던가? 말로만 듣던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모시고 출가하여 오래 동안 함께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식을 모시고, 수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와 오만으로 가득차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식을 만나기 전의 공부는 다 헛것이라는 말씀에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식을 모시고 출가수행생활 4년 그리고 그 후 금강경을 50년 넘게 공부하였다면 적어도 견성성불(見性成佛)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화는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요 속으로의 변화이며, 현재의식의 변화가 아닌 잠재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겉으로의 변화도 물론 쉽지는 아니하나 속으로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변화요 운명을 바꾸는 변화요,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하여도, 또 치열한 구도행각을 한다고 하여도, 마음속까지의 변화 잠재의식까지의 변화는 쉽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하여도 겉으로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의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시킵니다. 겉으로 아무리 큰소리친다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경우 사람들을 정말 두렵게 합니다. 겉으로만 착하다면 사람들이 공경공양하지 않지만 속마음까지 착하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감동하며 공경공양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정(定)인가 어떤 것이 참된 혜(慧)인가 하는 것을 밝은 선지식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는 수도를 통하여서는 진정한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곧 계를 닦고 정을 이루어 혜를 체득하였다는 뜻입니다. 겉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변화하는 것이요, 6식(현재의식)만의 변화가 아닌 7식(잠재의식)까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까지의 변화란 무시겁의 업보업장이 소멸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며 자신만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고, 이는 오직 선지식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화두참구 3요소중 하나인 대신심

〈초발심자경문〉에 삼일수심은(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盡)이라는 말이 나온다. 3일동안 닦은 이 마음은 천년 보배요, 백년을 탐해 모은 재산은 하루 아침에 먼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경책이다.

하지만 생활속에서 이 탐심, 집착심을 뿌리뽑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지 못하므로서 오는 중생병 때문인데, 금생에 이 병을 치유하는 가장 유일한 처방약은 참선이며 간화선 의 '이 뭣고' 라고 생각한다. 중생의 미(迷)한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진심으로 믿고 행하지 못하고, 저 강물처럼 흘러 보내며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 첫째는 대신심이다. 대아(大我)인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는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는 묘각인 축의 작용에 의해서이다. 우리들도 마치 콤파스(compass)의 축에서 원(圓)이 그려지듯이 그 축과 함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본래불이라는 신심의 축이 바로 세워져야 흩어지지 않고 해매지 않아 그 자리 원각(圓覺)과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동시에 주인이 되어 당당히 생사영단(生死永斷) 즉 생사의 고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從)노릇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만다. 최상승법에서 신심(信心)은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는 밖에서 구(求)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처 일체시에 언제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 소소영영한 바로 이놈에 즉해서 '이뭣고' 로 내 안의 자성불(自性佛)을 철견(徹見)한다는 믿음이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에 보면 '기제기제(奇哉奇哉) 보관일체중생(普觀一切衆生) 구유여래지혜덕상(具有如來智慧德相) 단이망상집착(但而妄想執着) 이불증득(而不證得)' 이라고 했다. 의미를 풀어보면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내가 본래불이라는 신심축이 바로서야 원각 이뤄
집착의 혹(惑)만 떼내면 부처님과 꼭 같은 본래불

널리 일체중생을 살펴보니 여래의 지혜 덕상을 똑같이 갖추건만 단지 망상(妄想)과 집착(執着) 때문에 깨달아 쓰지 못하는 구나"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망상과 집착의 혹(惑)만 떼어버리면 부처님과 꼭 같은 본래불인 것이다.

통현(通玄)장자의 화엄론 게송에 "불시중생심리불(佛是衆生心裏佛) 수자근감무이물(隨自根堪無異物) 욕지일체제불원(欲知一切諸佛源) 오자무명본시불(悟自無明本是佛)"이 있다. "부처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니 자신의 근기에 따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일체 부처님의 근원(根源)을 알려고 하는가? 자신의 무명(無明)만 깨달으면 그대가 바로 부처라네" 하여, 중생이 한 생각 무명인 탐진치 삼독심서 벗어나면 그대로 부처라 하였다. 한 생각 이전의 허공같이 텅빈 자리가 적멸(寂滅)이며 우리의 본래 성품인 원점인 것이다. 이름 붙이기 이전의 이 자리는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이다. 그 이름도 모양도 말길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나와 대우주와 일월성신 산하대지가 딱 하나가 된자리를 들어내는 유일한 통로(通路)가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며, 이는 곧 부처이고 화두인 것이다.

본래 어둡고, 밝고, 알고, 모를것이 없다. 누구나 본래부터 그대로 부처이고,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와 깨닫는 대상은 둘이 아닌데, 둘로 나누어 놓고 깨달으려 하니 남북이 갈라진 것이다. 깨달아 증득하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으니 장애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고, 깨달음을 구(求)하는 것은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자기집을 찾는 격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는 불성 확인을 위해 부인 야소다라와 부귀영화를 버리시고 설산으로 향하신 깊은 뜻을 믿는 것이 바로 대신심이다. 최상승법인 화두 '이뭣고' 는 승속을 떠나 최상승근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에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활구참선 '이 뭣고' 를 수행하는 불자들을 말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